

# 1918년. 오데사 ана키스트 산악 전투부대의 ана키스트 선언문.

심장중의강철

노동자인 당신의 목에 쇠사슬을 맴러는 부르주아 무리들은 그대들을 산산조각내는 반혁명의 즐거움을 만끽하려합니다.

저놈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성 바르톨로메오[1]의 밤을 주선하였으며 파리의 자유 투사들을 학살하기 원합니다.

허나 그놈들이 생각한 것 처럼 우린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저놈들에게 대항할 유일한 방법, 정직한 혁명가인 우리 노동자들이 대항할 유일한 방법은 국제 노동자들의 연대로서 국제 부르주아놈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깨에 손을 얹고 손을 마주잡는 것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리가 그저 공허 속에서 나돌아다니는 헛소리인줄만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차르 니콜라이를 무너뜨렸으며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8시간 노동을 쟁취하였고 우린 우리의 손으로 10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조직된 혁명은 부르주아 놈들의 구사대를 물리칠 것입니다!

노동자여 단순히 말뿐으로는 우릴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무기로! 말로 그들을 구슬리는 것이 아닌 총의 대화로 그 악랄한 흡혈귀로부터 우릴 지켜야합니다!

무장하십시오!

저놈들의 공격으로 쫓겨나고 쫓겨나고서도 숨어살 때 이제 우린 마침내 진정한 적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복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살범들을 쫓아냅시다! 혁명의 전사들이여!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무기들이 그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 발 아래에 놓인 그것을 당신의 깃발로 드십시오!

인민 최고의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읍시다!

우리들의, 우리의 대열에, 혁명을 위해 모인 투사들의 대열에!

아나키즘을 위해! 소비에트(코뮌)을 위해! 전진! 앞으로!

Являться с мандатами от заводских комитетов или других революцио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Боевая дружина анархистов гор. ОДЕССЫ.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февраль — апрель 1918 г.] ГОПБ. ОРК. Коллекция листовок. Печати. (28,5 x 36,0). Публикуется впервые.

다음 아래는 위의 선언문을 포함한 1883~1935년까지의 자료를 작성한 A.A 보로보이[2]가 이 선언문에 대해 남긴 감상문.

아나키스트 선언문.

혁명과 자유는 항상 피와 고통에서 태어났다.

새 새벽의 여명에 항상 희생자들이 나왔다. 영웅의 피가, 전사들의 피가. 하지만 이들의 피에서 새 새벽이 창조되고있다.

그리고 과거를 지키려는 이들은 이를 막으려한다.

하지만 과거의 망령들이 말했던 것 처럼 혁명과 자유를 위해 피흘린 희생자들의 희생은 결코 무의미한게 아니었다. 우릴 막으려는 거인이 알지 못하는 인류의 발전이 있기 때문이다.

옛 권위주의의 유산으로 부셔졌던, 국가가 강압으로 묶였던 사회는 다시 재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어느 위대한 영도자(차르던지 누구던지)에 의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질서를, 지배계급의 전쟁. 이를 모두 재조직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행동은 진리를 부셔버리는 독선적인 하나의 행동이 아니다. 이는 그저 과거의 망령에 묶여있으며 자유를 거부하는 그들의 사회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을 발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새롭고, 우리가 창조할 수 있으며 내 삶에서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누가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닌 자유민들의 열망과 이익을 위한 행동이 만든 사회에서 나올 수 있다.

아무리 자비로운 "보호자"가 있을지라도 우린 모든 보호자를 끝내야한다. 그 어떤 대리인이 있든 우린 그 모든 대리인을 끝내야한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되어야하며 내 손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아나키즘은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나키즘은 우리 삶의 이정표다! 아나키즘과 함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가난, (사회 강압에 의한) 소심, 노예 상태로 짓밟혀져있다!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이론" 앞에서, 강압과 타락적 규율 앞에서의 삶은 의미가 없다! 진정한 삶이란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지와 용기,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깨달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쟁취하고 자유민이 되겠다는 열정이다! 이 사회에서 "나"가 이 사회에 가지는 것이 크든 작든 모두 아나키스트가 될 수 있다!

아나키즘은 자유의 교리이다! 관념적으로 추상적이지 않은, 유령의 자유가 아닌 물질적이고 존재하는! 모든 아나키즘의 핵심!

제도적 억압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말한다! 다른 이가 우리를 위해 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아나키스트의 자유는 누가 만들어 주는 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가 합의하여 만드는 법만을 따르는 것이다!

모두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노예가 된다면 모두에게 자유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나키스트는 그러기에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닌 모든 지구촌 인민들이 자유로워질 때 까지 투쟁해야한다! 이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없다!

아나키즘에서 절대적인 것은 바로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자유이다! 누구도 억압하지 않는 자기 발전의 권리! 대중이 뭐라하든 발전할 수 있는 권리!

아나키스트들은 더 새롭고 더 다양하고 더 질서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그들 권위자가 주장하는 질서는 질서가 아니라 혼란이라고 생각하기에

모든 이의 아나키즘적 마음은 이타적이고 이기적이며 그리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더 많은 토론을 하며 발전한다.

아나키즘은 평등의 교리이다! 모든 사람의 자유는 평등하다! 모두가 자신의 삶의 창조자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사적 영역은 불가침의 영역이다!

아나키즘은 문화의 교리이다! 아나키즘은 문화의 절대적인 파괴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극복을 말한다!

아나키즘에게의 파괴는 새 문화를 창조하고 극복하기 위한 파괴를 의미한다! 파괴의 열망은 곧 창조의 열망이다! 창조의 열망이 없는 무의미한 파괴는 아나키즘이 아니다!

사람들의 재산은 분배되어야하지만 개인적인 재산(옷등)은 개인이 가질 수 있어야한다.

사람들이 삶과 사회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은 언제나 사회화될 필요가 있다. 생산수단의 사유재산화는 곧 새로운 사회의 종말이다.

아나키즘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해방의 상속자이고 그 해방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우리의 해방이다.

인간은 자신의 성취적 열망에 책임을 지기에 이 해방은 언제나 안전하다.

아나키즘은 사랑의 교리이다! 아나키즘은 자신만이 아닌 남도 알라는 사랑을 말하기에 그리고 이 사랑이 모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랑으로서 모두가 위대한 업적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사랑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만의 것이 아니다.

멀리 떨어져있는, 언젠간 올 수 밖에 없는 미래가 온다면 그 형제들은 "현대"의 사랑을 전제봉건적이며 부르주아적이라고 말하며 투쟁하고 파괴할 것입니다!

이는 그저 개인을 향한 피에 미친 복수나 뻔뻔함이 아니다! 이는 개인의 해방을 울부짖는 "현대"의 우리가 누리는 것이 권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사랑이 미래에 학살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과거의 "민족주의적 연대"가 현대에선 "민족주의적 억압"이 되었던 것 처럼!

아나키즘은 기쁨의 교리이다! 아나키즘은 인간을 믿는다! 인간의 무한한 발전을 믿는다! 이 사회는 인간이 쌓아올린 업적이기에!

모든 시대의 업적은 인간들의 업적이기에!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로서 기쁨을 가지고 있다.

창조는 사람에게 오는 가장 큰 기쁨이다!

А.А.БОРОВОЙ. Анархизм. М., 1918. С. 168—169.

[1] Le massacre de la Saint-Barthélemy.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을 의미함.

[2] Алексей Алексеевич Боровой. 알렉세이 안드리아노프 보로보이 1875~1935.

<http://docs.historyrussia.org/ru/nodes/14116-anarhicheskiy-manifest#mode/inspect/page/1/zoom/4>